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 개념의 모색: 동일성(identity) 개념을 중심으로

임병조* · 류제헌**

A Search of Regional Concept in the Post-Modern Era: In Case of Identity

Byoung-Jo Leem* and Je-Hun Ryu**

요약 : 지역 개념은 지리학의 역사와 함께 매우 다양하게 발달하여 왔다. 모든 지역 개념은 당면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시대적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지구화로 대변되는 오늘날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역동적이며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관계, 제도적 체계, 이데올로기, 상징 등과 같이 다양한 특성들이 주관성에 기초하여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의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표출되고 있는 상이한 견해들을 통합하여 주민들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은 객관적, 고정적 실체이기 보다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구성'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구성은 지역과 관련된 주체들이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지역 동일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지역 동일성은 포스트모던 시대 지역의 주요 속성, 즉 다양성, 주관성, 역동성, 가변성을 탐구하고 설명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지역 동일성의 구축은 영역적 경계, 상징, 제도 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 즉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을 필요로 한다. 지역 동일성은 외부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관념이며 주민을 비롯하여 행정기관, 학술단체, 언론, 교육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제도화 개념은 지역 동일성의 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지역 개념, 지역 동일성, 동일성의 구성, 제도화

Abstract : In a long history of geography, a variety of regional concepts have been suggested to represent the particular situations in each period. Today, post-modern situation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globalization, demand a new variety of regional concep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ocial relations, institutional systems, ideologies and symbolism, are now perceived basically on the level of subjectivity. Currently, it is the most urgent task to integrate many conflicting opinions among a variety of subjects into the one that would seek a voluntary consent from the majority of regional residents.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identity is the most efficient in examining and explaining the post-modern trend of a region: variability, subjectivity, mobility, changeability.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a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ole of institutions, that is institutionalization, in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identity,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cultural-historical aspect of a regional change.

Key Words : regional concept, regional identity, a construction of identity, institutionalization

*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Ed.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Teacher, Cheonan Dujeong Highschool), limbkh@hanmail.net.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hryu@knu.ac.kr

1. 서론

‘지역(region)’은 근대 지리학이 탄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어 온 지리학의 주요 개념인 동시에 대상이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의 학문적 위상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지역 개념이 탄생하였다. 모든 사상이나 개념이 그것이 등장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듯이 지역을 설명하고 탐구하기 위한 개념을 포함하는 방법론 또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지역 개념은 당시의 학문적 현실은 물론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들로 제각기 크고 작은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역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지역 개념이라도 모든 시대와 환경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대적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지역 개념의 출현을 요구해 왔다. 사회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한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보화’와 ‘지구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오늘날에는 지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그리고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걸 맞는 새로운 지역 개념의 정립과 이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이라는 세계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지역에는 크고 작은 스케일을 융합시키는 수많은 사회적 실천과 담론들이 작용하고 있다. 인접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지리학 또한 내부의 여러 분야 사이의 경계를 넘어 지리학의 주요 대상인 지역 또는 장소를 연구할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심지어 학문적 경계를 넘나드는 지역 개념이 주로 도시계획에 관여하는 전문가, 정치인, 사업가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Gren, 2002, 85-86). 이러한 지리학 내외의 상황 변화는 지리학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 제도적 체계, 이데올로기, 상징, 주관성(subjectivity)/동일성(identity) 등이 어떻게 지역(또는 장소)을 통하여 담론과 실천으로 실현되는가를 탐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제 지역은 더 이상 수치나

물리적 형태를 근거로 설정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고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을 포함하는 주관적 요소들이 작용하는 주관적 구성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관광과 여가 활동의 확장 등 생활의 변화에 따라 ‘장소 판매(place marketing)’와 ‘장소 판촉(place promotion)’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Ward, 1998, 1). 한국의 경우도 최근 지방자치와 맞물리면서 장소 판매와 장소 판촉은 전국 각지의 열렬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절대다수가 특정한 지역의 역사·문화적 유산이나 특산물을 자원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봉착하는 문제점은 역사·문화적 유산이나 특산물이 오늘날의 행정구역 단위와 정확히 일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정한 지역에 대한 대립적인 견해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적 입장을 주민 전체가 수용하도록 어떻게 설득하는가는 이들 모든 사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동질성(homogeneity)이나 결절성(nodality)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을 규정하는 과거의 지역 개념을 포괄하고 확장하는 새로운 지역 개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역 개념은 주체(subject)의 주관성(subjectivity)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지역개념은 또한 특정한 지역을 역동성과 가변성을 속성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이라는 사회적 구성물의 변형 과정에 개입되는 헤게모니(hegemony)와 권력 관계(power relations)도 반드시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한 지역은 ‘그곳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이고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들(또는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 구성물인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지역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개념으로서 ‘동일성’ 개념은 최근 구미의 지리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학문적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 이는 동일성(identity)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계기로 인문학은 물론 사회과학계의 핵심적 논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

적 상황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사실 동일성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단순히 '정체성(正體性)'으로 이해되었던 것과는 달리 주관성과 역동성은 물론 다양성과 가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시각의 선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만큼 지극히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 본고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지역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유효한 개념으로 상정하고 이를 지역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최근에 논의되었던 다양한 지역 개념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볼 것이다. 이 과정은 최근의 사회적 변화가 다양한 지역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다고 보고 이 가운데 동일성과의 관련성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어서 동일성의 철학적인 의미를 검토한 다음 이를 포스트모던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지역을 정의하는 개념의 하나로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지역동일성의 구성과정을 해석하는 개념적 틀로서 제도화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2. 지역 개념의 다양성과 지역 동일성 개념의 대두

1) 지역 개념의 다양성

지역지리학은 1950년대 계량 혁명 이후 약 30여년 가까이 지리학 연구에서 주류를 벗어나 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론을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Gregory, 1978, 8). 그 후 10여 년 간 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연구 방법이 제시되었고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실증적인 지역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쓰리프트(Thrift)와 존스톤(Johnstone)에 의해 '신지역 지리학(new regional geography)'으로 명명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화되었다. 길버트는 영어권과 프랑스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이론적 논의를 동반한 1980년대 이후의 지역지리학 연구 동향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Gilbert, 1988, 209-213). 길버트에 의하면,

지역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지역 개념을 근거로 분류된다: (1)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 대한 국지적 반응으로서의 지역(region as a local response to capitalist process), (2) 동일시의 초점으로서의 지역(region as a focus of identification), (3)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매개체로서의 지역(region as a medium for social interaction). 이와 같은 새로운 지역 개념들은 동일성이나 결절성을 근거로 지역을 설정하는 고전적인 유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파시(Paasi, 2002, 804)에 의하면, 지역지리학에서 논의되어온 지역 개념은 전과학적(pre-scientific) 관점, 학문 중심적(discipline-centred) 관점, 비판적(critical) 접근 등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전과학적 관점은 지역을 통계자료 수집이나 지방 통치 등을 위해 주어진 공간 단위로 보는 것이다. 이는 곧 지역을 현실적인 통치 행위나 이와 관련된 기초 정보의 수집을 위한 공간적 범위로 보는 것으로 근대 지리학이 체계적으로 발달하기 이전 단계의 지역 개념을 근거로 한다. 학문중심적 접근은 지역을 연구의 대상, 또는 결과물로 보는 관점이다. 지역연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객관적 지표들을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지역의 경계 구분과 설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이 실질적인 단위(real units)인가 아니면 상상에 의한 정신적 존재인가에 대한 논쟁처럼 특정한 학문적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지역이 활용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지역은 학문적으로 사회화된 실례로서 주로 계량혁명 이전 시기의 지역 개념들을 근거로 한다. 비판적 접근은 지역을 동일성(identity)의 형성 과정이나 상호 작용을 위한 체계, 그리고 자본축적의 표현으로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파시는 길버트에 의해 분류된 새로운 지역 개념의 유형 모두를 근현대 지리학의 과학적 접근과 차별되는 비판적 접근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지역 개념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이는 신지역지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이러한 입장은 주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는 지역을 생산 양식과 관련된 사회적 과정의 공

간적 조직으로 보며, 노동력의 사회적 분화, 자본 축적 과정, 노동력 재생산, 우월성의 정치적·이념적 과정 등의 지역화(regionalization)에 주목한다. 이는 지역 상호간 경제적, 정치적 차별성을 불균등 발전 과정의 산물로 간주하며 이러한 차별성은 핵심-지역(core-region)에서 발휘된 시장 권력이나 정치적 우월성에 의해 역사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으로 본다(Agnew, 2000, 102). 영국의 일부 학자들은 지역을 특정한 계급적 실천(class practices)이나 독특한 문화 또는 지역주의(regionalism)를 통하여 형성되고 변화하는 실체로 파악하기도 하였다(Gilbert, 1988, 209).

이들은 1980년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공간적 차별성을 이해하는 것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적 차별성의 기본 단위로 '로컬리티(locality)'에 관심을 두었다(Johnston *et al.*, 2001, 456). 실제로, 1960년대 이후 영국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로 생산력이 크게 증대된 반면 실업이 증가하고 직업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유연성과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에 대한 논쟁의 대두, 노동당의 몰락과 보수 우익의 득세와 같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1980년대에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것이 다름 아닌 로컬리티 연구인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공간적 변이는 중요성이 매우 크며 즉각적인 정치적 반응을 일으키므로 국가적 변화가 전국 각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다(Massey, 1994, 128).

두 번째 입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의 문화가 지역 연구에 있어 기초적인 대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는 연구는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감이 있다. 이 경우에 지역은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장소 사이에 주민들의 특별한 인지를 기반으로 독특한 문화적 관계가 맺어지는 배경(setting)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입장은 지역을 동일시의 초점으로 간주하므로 특정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다르게 자신을 규정하는 방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역은 특정한 집단에 의해 일부 공간이 상징적으로 전유된 것이며 (주민)

집단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증대한 요소의 하나로 간주된다. 지역 동일성에 대한 관심은 인간주의 지리학에 이어 포스트모더니즘 지리학이 출현하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는 주민들의 생활이 개인주의화하고 개성이 강조되면서 민족성, 계급, 직업, 또는 생활 근거지 등과 같은 전통적 범주보다는 개성과 개인적 입장에 따라 자신의 생활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Paasi, 2003, 475).

이와 같은 지역 개념은 인간주의 지리학 이외에도 구조주의와 정보 이론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인간주의 지리학은 지역 연구의 관점을 주민의 시각으로 되돌리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의도적인 주관성과 경험에 주목한다. 주로 프랑스 지리학자들에 의해 소개된 바 있는 구조주의적 관점은 지역의 집합적인 의미와 공통적 특징을 강조한다. 이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인식과 동일성의 기반이 되는 물질적 환경에 대한 개인적 이해의 형성에 기여하는 정보, 실천(practice), 지식 체계 등에 관심을 갖는다. 이 경우에는 집단 상호간 관계 또는 집단 내부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지역 연구의 주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상충하는 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다. 정보 이론에 근거하는 입장은 장소와 공간에 대한 집합적 사고방식을 고양하는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특정한 지역 집단의 구성원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일정한 지역적 특성을 생산하는 생활양식(lifestyle)을 통하여 지역의 동일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유형의 문화적 전수 양식은 하나의 지역 동일성(regional identity)의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편 또 하나의 지역 차별성(regional difference)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Gilbert, 1988, 211).

끝으로, 사회 내부의 우월성과 권력을 지역적 차별성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지역은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s)'이지만 일정한 과정의 결과(results)가 아니라 과정(process) 그 자체이므로 역사적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ntrikin, 1996, 216). 이는 하나의 지역이 사회적 상호

작용에 일정한 매개체로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생산과 재생산에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Gilbert, 1988, 212).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장은 사회 내부의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경제는 물론 문화와 상징까지 포함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에서 국가와 같은 사회적 공동체들은 공간적 범위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하는 '상상의 산물'로 규정된다(Anderson, 1991, 6). 특정한 지역은 시간상으로 사회의 집단적 동일시에 기반을 두는 한편 사회적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재생산되는 것이다. 지역, 경계, 상징, 제도 등은 자율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공간, 재현(representation), 민주주의, 복지 등에 관련된 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의 순간적 표현이다(Paasi, 2002, 805).

이와 같이 지역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입장은 하나의 지역을 로케일(locale)로 인식하는 영어권 지리학계와 영역(territory)으로 인식하는 프랑스어권 지리학계의 입장으로 대별되기도 한다(Gilbert, 1988, 212). 그렇지만 하나의 지역을 로케일로 정의하든 또는 영역으로 정의하든지를 막론하고 하나의 지역을 이해하는 개념적 도구로 동일성을 중시한다는 사실은 양쪽 지리학계의 공통적 현상이다. '로케일(locale)'은 사회학자 기든스(Giddens)가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통하여 제안한 용어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배경(setting)이나 상황(context)'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기든스의 견해에 따르면 '구조화'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결합하는 작용을 하는 인간의 능력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것이다(Johnston *et al.*, 2001, 454). 기든스와 같이 하나의 지역을 로케일로 바라보는 입장은 사회적 동일성(social identity)이 시-공간 속에서 구성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한다. 여기에서 인간 활동과 사회 체제 상호간 고유한 관계, 즉 생성 원인인 동시에 전수자라는 인간 활동의 이중적 구조는 특정한 지역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이러한 입장은 특정한 지역 내부에서 개인과 제도를 연결하는 관계는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동안 점진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하나의 지역을 영역(territory)으로 보는 입장은 사회적 동일성

(social identity)의 구성 과정을 분석할 때 권력(power)이라는 요인을 사회적 상호 작용과 동등한 차원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입장은 캐나다의 퀘벡(Quebec) 지역에서 활발히 연구된 바와 같이 특정한 지역이 사실상 영역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권력의 지리(geography of power)'라는 개념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한다(Gilbert, 1988, 213).

등질 지역, 기능 지역, 인지 지역(perceptual region)과 같은 고전적인 지역 개념은 공통적으로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 공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 지역들은 특정한 객관적 지표(指標)를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일단 설정되고 나면 어느 정도 고정성을 가지는 정태적(靜態的)인 존재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지역은 공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지역 상호간 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을 규정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요소들은 특정한 장소 또는 특정한 집단에 작용할 때 지역의 일부는 포함하고 나머지는 배제함으로써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의 단일한 지역으로 생각해 왔던 실체의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Allen *et al.*, 1998, 2-4). 따라서 고전적 지역 개념들의 시대적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특히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 결과로 이상과 같은 다양한 지역 개념이 등장하였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지속적이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특정한 지역은 더 이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단순히 규정되지 않고 각종 요인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지역에 대한 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화적 의미의 지역 개념과 사회적 의미의 지역 개념은 주관성과 사회적 관계의 의한 지역의 구성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동일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2) 동일성의 개념 정의와 지역에 대한 적용

(1) 동일성 개념 정의

여기에서 잠시 검토해야 할 것은 '지역적 동일성(regional identity)'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동일성(identity)'이라는 철학적 개념이다. 이른바 동일성이라

는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고대 이래로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는데 이는 동일성 개념 자체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하여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Hall, 1996, 2). 그 동안 철학계를 중심으로 동일성이 내포하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일정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대 영어로 아이덴티티(identity)라고 표현되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조차도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혼합된 채 세간에 다각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예를 들면, 최근의 동일성에 대한 논의를 대표하는 투겐트하트(Thgendhat)는 독일어로 'Identität'이라는 용어는 "개인(individual)이 구현하는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개별성(individuality)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견해를 피력한 헨리히(Henrich)는 "이러한 용어는 개인의 고유한 성질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립성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안게른(Angehm)은 "동일성에는 개별성, 성질, 같음이라는 세 가지의 논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제각기 '수적 유일성(數的 唯一性)', '질적 동일성(質的 同一性)', '자아-동일성(自我-同一性)과 대응된다."고 주장하였다(이현재, 2005, 264-267).

안게른의 견해에 따르면, 고대 철학에서 동일성은 자아가 '타자와 다름'이라는 의미, 즉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되는가?"라는 '개별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개별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고대 스킨라 철학에 근원을 두는 것으로 '수적 유일성'을 기준으로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중세까지 이어진 이러한 철학적 경향은 대체로 개별화(individuation)라는 문제, 즉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동일성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자아-동일성' 또는 '인격(person) 동일성'과 같은 '개인적 동일성' 자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러한 관심의 저변에는 개인적 동일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개별화라는 보다 더 원초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유원기, 2004, 132).

이에 반해, 현대의 사회학자들은 동일성 개념을 정의할 때 개별성보다는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성질'을 규명하는데 더욱 관심을 집중한다. 이들은 개인의 동일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떠한 집단의 구성원인가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개인의 성질에 대한 질문은 "그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가?"가 된다. 하나의 개인이 성취하는 '내적 통일성'은 그의 동일성이 성립하는 중요한 전제로 간주해야 하므로 개인의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개인의 역할은 그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 집단 전체와 공유하는 자신의 질적 동일성, 즉 동질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질적 동일성, 즉 동질성은 개인적 행위가 지향하는 모범과 이상 또는 일상의 습관, 능력과 업적, 인생의 경험이나 기회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비록 개인이 실천하는 가치 체계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한다고 하여도 시-공간적으로 지극히 가변적인 질적 동질성을 파악하는 완벽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난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는 다른 아닌 집단에 대한 개인의 '내적 동일성', 즉 '같음'을 규정하고 구별하는 절차이다. 질적 동일성은 시각의 차이는 물론 시-공간적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며, 일단 정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 그러므로 '내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동일성을 정의하는 데는 "어떠한 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다양한 질적 동일성들이 어떻게 모두 특정한 개인 자신의 것으로 통합되는가?"라는 질문이 보다 더 중요하다. 전자의 질문이 '내용적 동일성'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질문은 '형식적 동일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내적 동일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적 동일성들이 내용적으로 통일되기 보다는 그것들을 모두 하나의 개인에게 형식적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정당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내적

동일성, 즉 자아·동일성의 정당화에는 개별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형식적으로 통합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물론 주체적으로 종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그 밖에 사회·정치 이론을 취급하는 학계에서도 동일성(identity)이라는 주제는 끊임없이 다양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 이유의 하나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별적 존재의 유일성에 대한 근거가 되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소속된 집단의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Taylor and Spencer, 2004, 1). 카스텔은 동일성의 유형을 ‘정당화하는 동일성(legitimizing identity)’, ‘저항 동일성(resistance identity)’, ‘기획 동일성(project identity)’ 등으로 분류하였다(Castells, 1997, 6-10). 여기에서 ‘정당화하는 동일성’은 사회 제도를 통하여 다른 사회에 소속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확대하고 합리화하려고 구성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실례가 민족주의이다. 이와 반대로, ‘저항 동일성’은 타자에 의해 우월성의 논리로 압박을 당하거나 평가 절하되는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일정한 사회 제도에 순응 내지 복종하기 보다는 반대 내지 위반하는 원칙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자신의 저항과 생존의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동일성이다. 마지막으로, ‘기획 동일성’은 어느 정도 유리한 사회·문화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회 관계자들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성은 전체적인 사회 구조의 변형을 기도할 때 필요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실례가 페미니즘이다. 흔히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저항 전선을 넘어 가부장적 제도에 도전하고자 할 때 등장하는 동일성이다. 또한 이는 역사적으로 깊은 연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배의 생산과 재생산은 물론 성과 개성의 공고한 구조의 변혁을 도모하고자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동일성이다.

동일성은 개인적으로는 수적 유일성과 내적 동일성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사회 내부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위치를 근거로 구성된다. 이는 또한 사회를 지배하는 우세한 문화의 흐름이나

이에 작용하는 권력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구성된다. 동일성은 끊임없이 진보하는 과정이며 자아(주체)와 타자(객체)와의 교섭 공간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실천된다. 동일성은 결코 고정되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constructed)’ 존재인 것이다(Taylor and Spencer, 2004, 2). 동일성은 궁극적으로 사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문화적 의미의 순환에 관여하는 정치적 과정 그 자체이다.

(2) 동일성 개념의 지역에 대한 적용

철학에서 논의된 동일성 개념을 지역에 적용해 보면, 먼저 수적 유일성(數的 唯一性)을 전제로 하는 동일성은 보통 보편성을 부정하는 배타적인 동일성이므로 객관화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이현재, 2005, 268). 동일성은 형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주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보편성을 부정하는 수적 유일성만으로는 동일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동일성은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자에 의한 인식이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부되어 구성되기 때문이다(Calhoun, 1994, 20). 예를 들면, 예술가의 독창성은 사회적 보편성 또는 타자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의 이해가 가능한 보편적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지역 동일성도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적 유일성은 동일성의 성립에 대하여 필요조건이 될지는 몰라도 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적 유일성에 근거한 동일성은 지명이나 상징과 같은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표현을 통해 어느 정도 성립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로지 외부적 시각에 의해 확인되는 개별성은 당사자의 내부적 시각에 의해 달성되는 지역의 내적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완전히 인정받기 어렵다.

근대 이전에는 여행기나 답사기에서와 같이 특정한 지역이 독특(unique)하다는 이유로 ‘객관적 실체’로 인정받았지만 근대 이후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지역 동일성은 ‘수적 유일성’에 덧붙여 ‘내적 통일성’을 근거로 정의되고 설명될 때 비로소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의 내적 통일성은 철학자 안계른이 언급한 '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근대 이후 유럽의 지리학계에서 개발된 바 있는 형태 지역과 기능 지역의 개념이 바로 이러한 질적 동일성, 즉 동질성은 기준으로 정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역 개념은 주로 "지역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한 것이다. 지역의 역할은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 체계나 지역 공동체의 특성이 다양한 스케일의 다른 지역과의 관련성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의 관련성 속에서 지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나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지역의 내적 동질성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정의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내용적으로 통일되기 어려운 바가 있으므로 오로지 내적 동질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역 동일성 개념을 완벽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역의 질적 특성들은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가속적으로 변질되고 다양화되어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의 지역 범위로 묶이고 이러한 특성들을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지역과 같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역 동일성이 성립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하나의 지역을 범위로 하는 다양한 질적 동일성의 형식적 통합은 곧 주민들이 지역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인격적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의식적 느낌은 두 가지 관찰에 동시에 의존하고 있다. 자신의 동일성과 시간적 연속성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은 물론 타자도 나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이다(Erikson, 1976: 이현재, 2005, 274, 재인용)."

이와 같은 에릭슨의 견해를 지역에 적용해 보면 지역 동일성은 내적 시각과 함께 외적 시각에 의해 인식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오로지 외적 시각에 의존하는 동일성의 증명은 실천적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객관적 의미를 획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민의 내적 시각에 의해 확인되는 모든 것이 동일한 지역의 특성이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 동일성의 내적 시각은 다양한 질적 동일성을 동일한 지역의 것으로 종합하고 판단하는 주민들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와 같은 주민의 능력은 질적 동일성이 만들어지는 원칙을 이해하고 타자 혹은 다른 지역의 시각에서 이러한 질적 동일성을 생각하는 보편적인 능력을 갖출 때 획득된다.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은 보편적인 능력을 통하여 특수한 규범이나 특성을 추상화하여 다양한 특성들을 통일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동일성을 구축한다. 지역 동일성은 기존의 질적 동일성을 가감하여 내용적으로 종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있는 그대로 나의 것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지역 동일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의 연구와 이해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성장과 지방자치의 발달, 지리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증대 등의 영향으로 지리학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 판매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실천적 주체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이다. 안계른이 정의한 질적 동일성과 자아-동일성은 각기 고유한 내적 시각과 실천적 능력의 결합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 주체의 자율성은 단순히 자신이 타인과 다름이 아니라 자아의 내적 동일성(같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주체, 즉 주민들의 실천적 역할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요되기보다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동일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오늘날 실용적인 측면에서 주체의 실천적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동일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한국의 지역에 대한 연구와 이해에 접근하는 중요한 코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3. 포스트모던 지역 개념으로서의 지역 동일성

1) 차이(difference)의 개념과 지역 동일성

(1)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의 동일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일성의 근저에는 “주체(subject)가 객체(object)를 통합하는 원리, 즉 자연과 사회 내부에서 주체가 자기 것들은 물론 다른 것들을 자기 자신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이성백, 2002, 67). 이와 같은 동일성의 원리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상호 대립적이다.”라고 보는 근현대 철학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김지영, 2004, 49). 실제로 근현대 철학이 이전의 철학과 다른 것은 주체의 인식을 넘어서 객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고한다는 사실이다.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스스로 처한 시대적 상황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이해한다면 근현대 철학 역시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유 체계인 것이다. 근현대 철학의 핵심적 개념인 근현대성(modernity)은 공간적 제약의 붕괴와 대량 생산 체제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경제구조, 이성적 판단을 전제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와 보편주의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근현대성은 인간 해방의 주체가 되는 이성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합리주의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억압받는 다수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랫동안 서구 사회의 정신적 근간을 담당해 온 합리주의는 시민 혁명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와 계급적이고 집단적인 사고에 근거한 거대 담론이 수용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가 서구 사회의 진보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한편으로 이성이라는 주체가 인간에게 ‘동일화(identification)’의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사회(또는 자연)와 인간 주체의 합일’에는 주관성(subjectivity)이 개입되는 바, 주체는 비록 개별적이지만 주관성의 정당

성을 획득하는 단계를 거쳐 집단 구성원 다수의 동의 를 얻어내는 결과에 도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특정한 동일성이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구성되고 동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단일한 유형으로 획일화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동일성의 구성에는 주체가 객체를 지배하기 위하여 객체의 차별성이나 고유성을 억압하고 객체를 주체 자신의 주관적 형식으로 통합하는 원리, 즉 객체를 주관화하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존중하고 포용하기가 어렵다. 최근 들어 근현대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이 상당히 진전된 구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동일성의 원리를 주체가 객체를 자기 수중에 장악하는 지배 원리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유 체계인 것이다.²⁾

타자(other)를 주체의 동일성의 일부로 포섭한 근현대의 담론에서 진정한 타자의 의미와 위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주체는 본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제공된 이미지로부터 자기 인식을 하는 분열적인 존재이다. 라캉(Lacan)은 ‘거울 단계(le stade du miroir: mirror phase)’³⁾의 설명을 통하여 자아가 인정하는 듯이 보이는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과정이 실제로는 만성적 자기 오인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통한 자기 인식은 자기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실상은 좌우가 뒤바뀐 상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기 동일성을 구축하는 주체에게 자기 인식이란 애초부터 자신의 존재가 결여되고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양석원, 2001, 271).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의 타자에 대한 논의는 주체로 환원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은 ‘타자의 타자성(otherness)’을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들뢰즈(Deleuze)의 주장에 의하면, 타자가 기본적으로 존중되려면 자아에 대한 의식과 대상의 구별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아에 대한 의식과 대상의 분리를 가져오는 타자의 작용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공간과 시간은 연속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현재 세계를 연속적인 것으로 인식하

는 이유는 자아가 타자와 함께 현재 세계에 거주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가 온전하다고 믿는 이유는 우리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타자가 지각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지각 가능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Deleuze, 1990: 김지영, 2004, 62, 재인용).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에 의하면 서구의 형이상학은 '같음', 즉 동일성(identity)의 논리를 위해 '다름', 즉 차이성(difference)을 차별해 온 폭력적 위계 질서였다. 이제는 타자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기존의 동일성 개념은 차이성에 합당한 의미와 위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이성백, 2005, 14). 오늘날의 동일성 개념은 내부적으로 같은 성질(동질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성질(이질성)을 무시하는 방향을 탈피하여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더니즘(modernism), 즉 근현대주의는 동일성을 확고하고 안정적인 성질로 간주하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동일성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창조(creation)'와 '순환(recycling)'을 거듭하는 가변적인 성질로 이해한다(Bauman, 1996, 18). 결론적으로, 동일성이란 매우 복잡하고 부단히 변모하는 성질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일성의 경우와 같이 단수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 따라 다양한 성질로 표현되는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다.

동일성은 결코 통일되지 않은 채 더욱 분절되고 갈라져 왔으며, 결코 하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교차하고 반대되는 담론, 실천, 지위 등을 넘어 다중적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동일성은 급진적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인 동시에 끊임없이 위치를 변동하고 모습을 변형하는 과정이다. 동일성은 시대적 담론을 통하여 구성되므로 특정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을 가지고 생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동일성은 특정한 양식의 권력으로부터 발생하며 내부적 차별성이 없는 '같음(sameness)'을 의미하는 전통적 의미보다는 차이와 배제를 동반한 표현으로부터 나온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동일성은 '다름(이질성)'의 외부에서 '같음(동질성)'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질성)'을 포함한 내부에서 '같음(동질성)'으로 구성되는 것이

다(Hall, 1996, 4).

(2) 차이의 개념과 지역 동일성

지구화(globalization)의 추세와 더불어 급격하게 진행되어온 시-공간의 압축은 공간적 장벽을 붕괴시켰고 보편성이 부각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동일성을 암묵적으로 강화하여 공간과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탐구할 필요성이 생성되는 원인이 되었다. 공간적 장벽의 붕괴로 장소와 공동체가 공간과 자본의 영향을 받기 쉬워짐에 따라 지역주의와 민족주의적 정서가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장소, 개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소속감의 상호간 유대가 강화됨에 따라 장소에 대한 충성심이 제급의식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구동희·박영민(역), 1994, 319). 공간적 장벽의 붕괴는 상품과 자본 순환의 가속화와 전통적 산업 입지의 변화를 유발하는 한편 장소 상호간 경쟁을 심화시켰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공간적 장벽의 붕괴로 인하여 오히려 예전보다 지리적 환경의 고유성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새로운 산업 단지들이 출현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기술과 자원 조건이 좋았던 곳에 외부자본이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구동희·박영민(역), 1994, 343). 이에 따라 지역들은 제각기 자기 장소의 특성을 강화하고 부각시키고 차별적인 다양한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사회에는 특정한 차이를 억압하며 자신의 특권을 누려온 특정한 동일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Baldwin, 2004, 224). 근현대에는 이성 또는 합리주의라는 명분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백인은 비백인에 비해, 이성애자는 동성애자에 비해 특권을 누려온 시대이다. 현대 한국의 경우에 국가 권력은 시민 세력에 비해, 그리고, 중앙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에 비해 상대적 우월성을 유지해왔다. 중앙집권적인 절대 권력이 오랫동안 현실 정치를 지배해 왔던 한국의 현대사는 국가 중심적인 동일성을 양산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중앙집권화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역들이 주체적인 동일성을 구성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해 왔다. 예를 들면, 봉건 제도에 대한 저항의 역사는 비민주적 국가 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장되거나 '총질'

이라는 형태로 왜곡되어 지역 동일성의 요소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지역 동일성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으로 볼 때 동일성은 확고한 범주에 의해 사회 전체적으로 확인되기 보다는 주민들 상호간의 차별성을 포용하며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사회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동일성 구성의 메커니즘과 우월한 의미를 가진 헤게모니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Taylor and Spencer, 2004, 10-11). 특권적 주체의 입장뿐만 아니라 객체의 입장을 고려하여야만 비로소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획득하는 동일성이 구성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합리적인 정치·경제적 토대를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의 최근 상황도 중앙집권적 정치 권력구조가 지방 분산적으로 변화하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하였다. ‘다름(이질성)’에 합당한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지역 동일성은 국가 중심의 동일성에 대하여 소수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역 동일성은 국가(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의 합치 여부를 떠나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다름(이질성)’의 개념이 개입된 지역 동일성이야말로 그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함은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주관성과 지역 동일성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주장과 정책, 사회 운동 등은 장소와 동일성 또는 장소와 소속감의 상호 관계를 정립하고자 할 때 과거의 역사나 지역 특성에 대한 일치된 이해에 크게 의존한다. 이와 같은 장소에 대한 동일성이나 소속감은 특히 지역주의나 장소의 상품화 등과 같은 이념이나 행위들에 대한 심리적 기반이 된다(Massey, 1994, 168). 그러나 문화와 역사와 같이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기초로 하는 지역의 특성은 외부적 조건의 빠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외부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래

의 지역 전통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복원 수준에 머물기 쉽다. 그렇지만 현재에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살아 있는 전통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주관적 의식과 판단에 근거한 동일성이라면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고 주민을 통합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엔트리킨은 장소와 지역에 대한 사고를 주관적이고도 객관적인 차원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ntrikin, 1994, 224).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지리학은 장소와 지역에 대한 사고에서 오랫동안 탈중심적인 관점, 즉 외부자나 관찰자의 관점에 집착해 왔다고 한다. 그는 지리학의 지역적 접근을 혁신하려면 장소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 장소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일성은 표현하거나 드러내기 어려운 주관성이 객관적인 역사나 문화와 결합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Hall, 1993, 135). 지역 동일성을 이해하려면 주민의 주관적 의식과 같은 주관성과 지역의 역사나 문화와 같은 객관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사회가 공간상에서 통합되는 과정보다는 사회적 공간이 개인(또는 집단)에 의해 창조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지역 동일성을 탐구해야 한다. 지역 동일성은 역사적으로 우발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행정, 경제, 문화적 실체와 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주민의 의식이나 기억과 같은 심리적 지속성은 매우 다양한 동일성의 기준, 또는 동일성의 구성 요소의 하나가 되지만 객관적 실체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것을 지역 동일성의 구성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조성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한 입장과 의도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지역 동일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Baldwin, 2004, 225). 일례로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대한 특정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되살려서 주민들의 의식에 주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정한 입장에 의해 부각된 요소들은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지역 개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주민과 기업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인 참여를 유발하는 것이 점점 더 필수적인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의 개발 계획과 사업의 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주체들끼리 갈등하고 대립하는 의견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 (또는 국가)의 동일성을 설계하는 것이다(Amdam, 2000, 582). 동일성의 설계는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 즉 주관성을 충분히 고려할 때 주체의 능동적 참여와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

3) 지역 동일성과 권력 관계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특정한 사회적 행위자에 의해 유도된다기보다는 그들 자신을 행위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창조된다(Giddens, 1984, 2). 이데올로기, 정치·경제적 지위, 시민 의식 등은 이견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이견과 갈등으로부터 새로운 이미지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이미지가 유통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데올로기, 정치·경제적 지위, 시민 의식 등의 특성들이 또 다시 만들어진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마치 스스로 재생산되는 것처럼 순환적이므로, 사회 구조와 인간의 사회적 행동 사이에는 지속적인 상호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민족, 인종, 다문화주의, 성별, 섹슈얼리티, 주민 의식, 경제 등으로 인하여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지역 동일성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그 밖에도 지역 동일성의 형성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자연에 대한 사고, 경관, 건축 환경, 민족성, 방언, 경제적 성장 또는 쇠퇴, 주변-중심 관계, 주변화, 주민 또는 공동체의 상투화된 이미지, '우리들'과 '그들'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 실질적인 (또는 가공적인) 역사,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의식, 주민들의 동일시에 대한 산발적인 논쟁 등이 있다. 때로는 언어와 방언이 국가(민족)와 지역의 동일성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Knox, 2001, 316). 동일성은 다소 폐쇄적이면서 주민의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동일성을 구성하기 위한 담론이나

실제에서 의식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지역 동일성 또는 지역 의식은 개인 또는 가족의 공간적 역사를 캐는 질문, 즉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이동이 제한되어 있던 과거에는 동일성이 하나의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 동일성의 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출신 지역은 물론 권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집단을 구성하거나 해체하는 사회적 구분을 합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알고 믿도록 하기까지 권력 관계가 특히 지대한 작용을 한다. 지역 동일성의 형성에는 주민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집단적인 호감(또는 적대감), 대중적 의견, 대중 매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에 정치지리학자들은 동일성을 국가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 시민정신 등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로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Paasi, 2003, 476).

동일성과 차별성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scale) 상에서 발현이 되므로 특정한 지점의 동일성 또는 차별성은 스케일이 다른 또 다른 지역의 특성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Bell, 1999, 5). 이러한 공간적 상호 작용 과정을 거쳐 동일성은 궁극적으로 일정한 영역(territory)을 가지며, 이와 같이 지역화(regionalization)된 동일성은 집단적 행위(사고)의 배경이 된다. 특히 동일성은 인종, 성, 종교, 계급 등과 같은 차별성과 혼합되었을 때 더욱 큰 에너지를 가지며,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상관없이 역동적인 정치운동의 배경이 된다. 사실상 이러한 집단적인 행위(사고)는 '우리들'과 '그들' 사이의 사회적 구분과 경계가 없다면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유사성이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집단적 행위(사고)를 유발하기에 유리하다(Bernstein, 1997, 532). 특정한 유형의 동일성은 대체로 길고 짧은 역사를 가지는 지역화 과정을 거쳐 집단적 행위(사고)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투쟁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자에 대한 반대(차이)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척되어 온 사회적 동일성에 관한 연구들은 집단적 소속감이 개인

적 동일성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며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긍정적 집단으로 보는 계기가 된다고 가정한다(Oysterman, 2004, 17).

또한 동일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는 본질적으로 매우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 동일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Massey, 1994, 169). 사회적 요소들은 ‘우리들’과 ‘그들’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 내거나 사회적 구분과 공간적 표현을 생산하고 재생산할 때 제각기 다른 위치와 입장을 점유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동일성에 관한 담론들은 더욱 필연적으로 ‘권력 기하학(power geometry)’의 표현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권력 기하학의 생산과 재생산은 주민들이 태어난 로컬리티(locality)나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국가와의 관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Paasi, 2003, 481). 이와 같은 상황은 동일성을 객관화하여 하나의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지역 동일성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점점 더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4. 지역 동일성의 구성과 제도화 과정

1) 지역 동일성의 구성

오늘날은 모든 변화가 매우 빠른 시대로 지역의 특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역 상호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역의 획일화에 못지않게 다양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는 물질적 경관과 주민들의 의식이 모두 변형되거나 말소되어 버려 연결고리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한국의 대다수 지역의 실정이다. 지역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더라도 이는 누군가에 의해 지금까지 규명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역사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거나 아

니면 벌써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동일성은 상당히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오늘날 주민들로부터의 동의를 전폭적으로 얻어 내지 못한 동일성으로 주민들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들이 의외로 많다.

지역 동일성은 사회적, 공간적, 역사적(문화적)인 현상으로 고정적인 동시에 가변적이며 파괴적인 동시에 생산적인 특성을 갖는다(Raagmaa, 2002, 56). 이는 사회 집단이나 지역 공동체에 의한 포함과 배제의 과정을 통하여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적 공간과 동일성은 역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인 소속감은 음식이나 안전에 대한 습관적 욕구와 같이 거의 변함없이 지속된다. 최근의 정보 사회가 새로운 동일성을 창조하고 있는 현실은 불과 10~20년 전의 상황에 비하면 매우 달라진 것이다. 초국적 기업과 지구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세계는 역설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에 근거한 동일성에 대한 요구를 높였다. 때때로 이러한 지역 동일성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귀속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쁘게는 주민들의 열등감이나 자만심을 대신할 수도 있다. 지역들의 이익사회(gesellschaft)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렬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동체(gemeinschaft)에 대한 요구가 부활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는 한편으로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지역 동일성의 구성 과정을 더욱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Raagmaa, 2002, 58).

지역 동일성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경관, 상징 등)과 정신적인 것(주민들의 의식, 신념 등)을 모두 망라하여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구성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 동일성 구성의 기준으로 이용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동일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과거와 같은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동일성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질문은 “우리들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들은 누구인가?” 등과 같이 ‘존재

(being)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역사, 언어, 문화 등과 같은 자원의 지속적인 '생성(becoming)'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근원(root)보다는 경로(route)를 추궁하는데 더욱 집중하므로 전통 그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전통의 발명을 대상으로 한다(Hall, 1996, 63). 결국 동일성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승인과 부인을 거쳐 사회적 소속감이나 법적인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규정된 것이다(유원기, 2004, 147). 지역 동일성은 자연적으로 생겨나거나 개인의 의지에 따른 행동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성되는 것이다.

2) 제도화

동일성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이러한 일에 적당하거나 가치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질문은 다양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동반하므로 실제로 '동일성의 정치'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Calhoun, 1994, 21). 이것이 목적하는 바는 타자들이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하고자 하는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모호하게 하며 심지어는 아예 대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성은 경우에 따라 매우 주관적이 되기도 하며,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지극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지역 동일성의 구성은 다양한 제도화 주체들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Keating, 2001, 217). 여기서 제도화란 지역 동일성의 구축을 위하여 영역적 경계, 상징, 제도 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제도화는 한편으로는 담론, 사회적 실현, 의식 등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 의해 통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화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의 지역은 자기 고유의 동일성을 획득하므로 장소에 대한 인식은 제도화 과정을 설명하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지역 동일성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객관적인 실체가 아님은 물론 때로는 주민들의 토착적인 지역 의식(regional consciousness)을 초월한다.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정치가와 지식인을 비롯한 타자들이 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고 이러한 지역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지지하며 유통시키는 작업에 가담하고 있다(McSweeney, 1999, 77-78).

대체로 지역 동일성을 구성하는 제도적 요소에는 경제, 행정, 언어, 매체, 문학, 권력 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혼합된 채 공동으로 지역의 실체와 담론에 영향을 준다. 지역 동일성의 제도화에 관여하는 다양한 조직과 기구를 포함하는 요인들은 제각기 지역의 의미와 기능을 다르게 이해하며 서로 다른 전략을 채택한다(Allen *et al.*, 1998, 4). 그러므로 제도적 실천을 통하여 지역 동일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지역 특성이 어떻게 창조되며, 다양한 사회 집단이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정한 지역 의식의 재생산 과정을 규명하려면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지역 특성이 제도화되는 과정은 물론이고 사회적 재생산 과정의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역의 동일성은 다른 지역의 동일성과 사회·공간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행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적 범위의 수축 내지 팽창을 반복한다. 특정한 지역의 동일성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역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지역 동일성의 구성에 관여하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은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개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파시는 지역 형성의 논리와 역사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제도화라는 개념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바 있다. 그의 제안에 의하면, 제도화 과정은 비록 도식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림 1과 같이 네 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1) 영역적 형상(territorial shape)의 발달, (2) 상징적 형상(symbolic shape)의 성립, (3) 제도(institution)의 출현, (4) 지역(region, locality)의 확립(Paasi, 1991, 243-247).

여기에서 (1) 영역적 형상의 발달 과정은 경제, 정치, 행정 등의 사회적 현상이 지방화(localization)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여기에는 권력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역(territory)이라는 용어는 지리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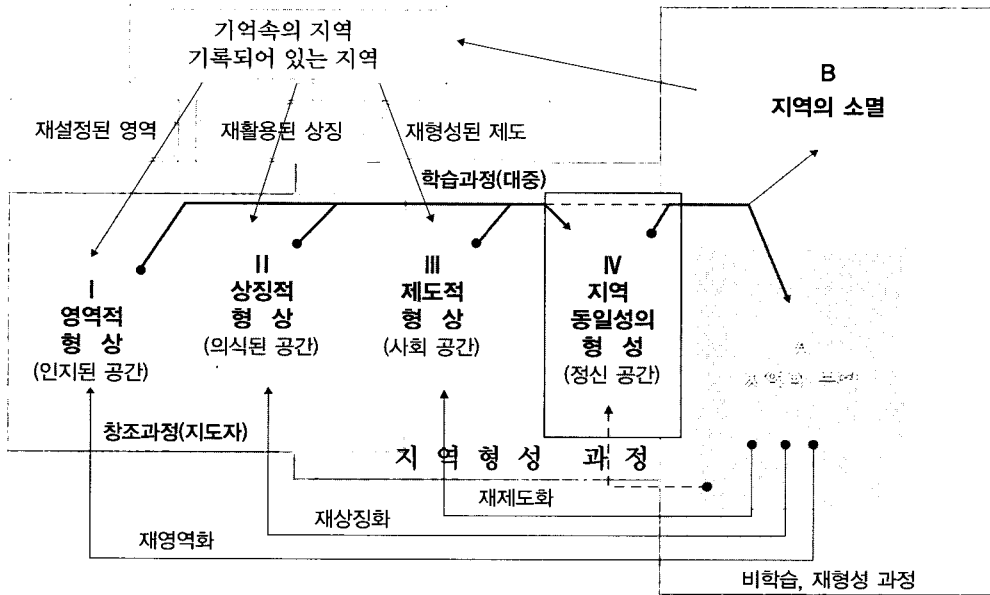


그림 1. 지역 형성 과정: 지역의 소멸과 부활

출처: Paasi, 1986(Raagmaa, 2002, 587, 재인용)

과 권력을 함축적으로 의미한다. 지방화를 통하여 지역의 변화가 발생하고 지역이 경계를 획득하며 공간 구조에서 독특한 단위로 규정된다. (2) 상징적 형상의 성립 과정에서는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상징적 영역은 역사나 전통과 함께 만들어지며 사회적 인식의 재생산을 촉진한다. 상징적 체계의 중요한 기능 한 가지는 현상(역할, 가치, 동일성, 특권 등)을 법제화하고 강화하며 고무하는 것이다. 영역 이데올로기 또는 지역 동일성(국가주의, 지역주의,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고 등)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3) 제도의 출현 과정에서 제도란 일반적으로 다양한 역할에 대한 기대에 의해 표준화되고 통제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 양식이나 시설이다. 대중 매체, 교육 기관 등의 공공시설이나 정치·경제·법률·행정 분야의 지방적, 또는 비지방적 실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영역적 상징과 기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장한다. 개인을 넘어선 집단적 사고 체계나 가치의 생산은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고 나아가 동일성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다양한 스케일에서 생산된 사회적 인식이나 소속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4) 지역의 성립 과정

은 지역이 형성되고 난 후 제도화 과정이 연속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제 영역은 '장소 판매'에 이용되거나 자원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이념적 투쟁에서 하나의 무기로 활용된다. 예를 들면, 영역은 사회 내부의 지역주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regionalism)나 지역 정책에 유리한 자원이나 권력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화 과정은 첫 번째 과정에서 네 번째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 네 개의 단계 가운데 일부만을 통과할 수 있으며 진행 순서가 서로 뒤바뀔 수도 있다. 이는 모든 지역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아니므로 지역 동일성의 구성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제도화 개념은 지역 동일성의 구성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역 동일성은 객관적인 실체로 공인되기보다는 다양한 주체, 즉 제도화의 요소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동일성은 지역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공간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

다(Amdam, 2002, 102). 특정한 지역에 '속한다'는 느낌은 집단적인 결속력을 강화하는 패권적인 지역 동일성에 동의하거나 저항하는 기능을 하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 동일성을 육성하는 기반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일성이 무엇으로 구성되며 집단적 행동이나 정치적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 동일성의 분석에 접근하는 방법은 문화·역사적인 과정을 추적하는 것과 정치·경제적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대별된다(Paasi, 2003, 478).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양자택일하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연구의 실제에서 이들 양자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사실은 특정한 지역이 영역의 경계를 획득하고 이러한 영역을 상징하는 구조가 조성된 다음 이러한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출현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역사적 접근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제도화의 과정에서 모든 단계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권력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치·경제적 배경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최종 단계가 또 다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지역 동일성은 우선적으로 주관성에 기초하지만 주관성은 행동의 자율성과 주체의 자기비판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 동일성은 일정한 형상과 위치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과정이나 과제(project)로 이해되어야 한다(Baldwin, 2004, 224). 과거의 지역 동일성은 오늘날 명료하게 형상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동일성은 그렇지 못하며 미래에는 또 다른 형상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동일성은 자아와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복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제도화의 개념은 현재를 포함하는 일정한 시점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지역 동일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5. 결론

지역 상호간 차별화(areal differentiation)를 출발점으로 하는 지리학에서 지역 개념은 오랫동안 중심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근대 이후 지역지리학은 제국주의나 식민지 팽창을 추구하는 국가의 실용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는 과학적 방법론의 발달과 지리 정보의 일반화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지역 지리학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지구화의 거센 조류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활되는 조짐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여전히 지역지리학은 지리학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역은 지리학 또는 지리교육에서 아직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고전적인 개념이다.

지금까지 지역 개념은 구미 지리학계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또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는 지역 개념이 다른 학문적 관념과 마찬가지로 시대별로 변화하는 사회적, 학문적 상황을 반영하며 발달하는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최근에 논의되었던 지역 개념은 대략 정치·경제적 의미의 지역 개념, 문화적 의미의 지역 개념, 사회적 의미의 지역 개념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연구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지역 개념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지역이라는 주제가 사회적, 공간적 변화에 그 만큼 민감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상황에 처한 지역은 내부적으로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공간적 제약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와 같이 제한된 공간과 특정한 지표면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정태적(靜態的)인 지역 개념으로는 설명이 곤란하다. 지역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이 있는 주체들의 입장과 가치 판단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 외부인이나 연구자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정의되었던 전통적 접근법으로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 제도적 체계, 이데올로기, 상징 등과 같이 다양한 특성들이 주관성에 기초하여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지역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르러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지방자치가 발달하면서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견해들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견해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선택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할 것인가는 지역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현재 지역의 이해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양성과 주관성 또는 역동성과 가변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은 지역 동일성이다. 그 동안 철학계를 중심으로 동일성의 개념은 시대와 학문 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철학계의 동일성에 대한 정의는 수적 유일성(單一性), 질적 통일성(同質性), 자아-동일성(동질성의 내적 통합)의 순서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정의들을 지역에 적용해 보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지역 동일성은 수적 유일성이나 질적 통일성을 추상화하여 형식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자아-동일성(동질성의 내적 통합)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의 지역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주체들로부터 동일성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므로, 그렇지 않은 근현대 시대의 지역과 다른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실천적 역할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지역 동일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지역은 주체의 실천적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동일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동일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관념이다. 지역 동일성의 구성에는 주민을 비롯하여 행정 기관, 학술 단체, 언론, 교육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개념은 지역 동일성의 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가치가 있다. 제도화는 영역적 형상(territorial shape)의 발달, 상징적 형상(symbolic shape)의 성립, 제도(institution)의 출현, 지역(region, locality)의 확립의 순서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는 일반화하여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역 연구에 접근하는 새로운 개념과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은 제도화되고 난 이후에도 경제·정치·법률·행정·문화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역의 생산과 재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는 다양한 시-공간적 스케일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언뜻 보면 지구화의 거센 조류 속에서 지역의 객관적인 특성들이 사라지고 특정한 지역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떤 지역들은 오히려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특정한 지역의 형성은 다양한 질적 특성들을 의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지역 동일성의 구성을 필요로 한다. 지역 동일성의 구성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로 대변되는 제도적 요소들의 입장과 행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 동일성의 제도화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의 하나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註

- 1) 보통 ‘아이덴티티(identity)’는 ‘정체성(正體性)’ 혹은 ‘동일성(同一性)’으로 번역이 된다. 이는 번역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 원인일수도 있으나 이것의 의미가 원래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문제이다. 실제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의 의미는 특성, 주제, 인격, 동일성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서 개인이 하나의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의미에서 그 개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관한 사회학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책임의 귀속을 밝혀 처벌을 정당화하려는 법적인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적인 논의에서는 주로 어떤 한 개인을 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찾아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철학계에서는 ‘정체성’ 보다는 ‘동일성’이란 번역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유원기, 2004, 127-128). 본고에서는 철학적 정의를 원용하여 ‘regional identity’를 ‘특정 지역과 동일시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찾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 동일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아도르노의 주장에 의하면 동일성의 원리는 주체의 특정한 형식을 객체에 부과하여 객체로 하여금 이 주관적 형식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객체의 고유한 성격은 희생되기 때문에 동일성의 원리는 객체의 고유성을 억압하면서 주체의 원리에 복종시키는 지배의 원리이며, 또한 사물

의 독자성을 파괴하고 그것을 인간을 위한 사물로 만드는 원리이다(이성백, 2002, 67).

- 3) 거울 단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어린아이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실재하는 타자로 지각한다. 즉, 자신과 타자를, 이미지와 실재를 혼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두 번째 시기에서 어린아이는 거울 속의 '타자'가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미지와 실재를 구분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시기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단지 이미지일 뿐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이미지가 바로 자신의 이미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된다(김형효, 1990, 238).

文獻

- 구동희·박영민(역),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서울(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Blackwell, Oxford).
- 김지영, 2004, “틀뢰즈의 타자 이론, 비평과 이론,” 9(1), 한국비평이론학회, 49-80.
- 김형효, 1990,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레비스트로쓰, 라캉, 푸코, 알튀세르에 관한 연구-*, 인간사랑, 서울.
- 양석원, 2001, “욕망의 주체와 윤리적 행위 - 라캉과 지젝의 주체이론,” 안과 밖, 10, 영미문학연구회, 269-294.
- 유원기, 2004, “동일성(Identity)의 기준에 대한 고찰,” 인간연구, 6, 가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126-149.
- 이성백, 2002, “동일성의 긍정성과 부정성 - 데리다, 아도르노, 헤겔, 맑스의 동일성 개념 비교,” 철학연구, 56, 61-77.
- 이성백, 2005, “동일성 비판을 통해서 본 포스트구조주의의 사회비판,” 시대와 철학, 16(4), 7-38.
- 이현재, 2005, “정체성(Identity) 개념 분석: 자율적 주체를 위한 시론,” 철학 연구, 71(1), 263-292.
- Agnew, J., 2000, From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s to regional political econom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1), 101-110.
- Allen, J., Massey, D., and Cochrane, A., 1998, *Rethinking the Region*, Routledge, London.
- Amdam, J., 2000, Confidence building in local planning and development: some experience from Norway, *European Planning Studies*, 8(5), 581-600.
- Amdam, J., 2002, Sectoral versus territorial regional planning, *European Planning Studies*, 10(1), 99-111.
-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London.
- Baldwin, E., 2004,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Prentice Hall, New York.
- Bauman, Z., 1996, From pilgrim to tourist or a short history of identity, in Hall, S. and Du Gay, P.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Sage, London, 18-26.
- Bell, V., 1999, Performativity and belonging-an introduction, *Theory, Culture and Society*, 16(2), 1-10.
- Bernstein, M., 1997, Celebration and suppression: the strategic uses of identity by the lesbian and gay movemen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3), 531-561.
- Calhoun, C., 1994,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Blackwell, Oxford.
- Castells, M., 1997, *The Power of Identity: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Informational Age)*, Blackwell, Oxford.
- Deleuze, G., 1990, Michel Tournier and the World without Others, *The Logic of Sense* (translated by Lester, M. and Stivale, C.),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Entrikin, J. N., 1994, Place and reg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2), 227-233.
- Entrikin, J. N., 1996, Place and region 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2), 215-221.
- Erikson, E., 1976, *Identität und Lebenszyklus*, Suhrkamp, Frankfurt am Main.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Polity Press, Cambridge.
- Gilbert, A., 1988,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 208-228.
- Gregory, D., 1978, *Ideology, Science and Human*

- Geography*, Hutchinson, London.
- Gren, J., 2002, New regionalism and West Sweden: change in the regionalism paradigm, *Regional and Federal Studies*, 12(3), 79-101.
- Hall, S., 1993, Minimal selves, in Gray, A. and McGuigan, J.(eds.), *Studying Culture*, Edward Arnold, New York, 134-138.
- Hall, S., 1996, Introduction: who needs identity?, in Hall, S. and Du Gay, P.(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Sage, London, 1-17.
- Johnston, R. J., Gregory, D., Pratt, G., and Watts, M.(eds.), 2001,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4th Edition, Blackwell, Oxford.
- Keating, M., 2001, Rethinking the region, culture,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atalonia and Galicia,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8(2), 217-234.
- Knox, D., 2001, Doing the Doric: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language and culture in the North-East of Scotland,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2(3), 315-331.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Polity Press, Cambridge.
- McSweeney, B., 1999, *Security, Identity, and Interests: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Oysterman, D., 2004, Self-concept and identity, in Brewer, M and Hewstone, M.(eds.), *Self and Social Identity*, Blackwell, Oxford, 5-24.
- Paasi, A., 1986,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emergence of region and the constitution of regional identity, *Fenia*, 164, 105-146.
- Paasi, A., 1991, Deconstructing region: notes on the scales of spatial lif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239-256.
- Paasi, A., 2002, Place and region: regional worlds and word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6), 802-811.
- Paasi, A., 2003, Region and place: regional identity in ques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4), 475-485.
- Raagmaa, G., 2002, Regional identity in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European Planning Studies*, 10(1), 55-76.
- Taylor, G. and Spencer, S.(eds.), 2004, *Social Identities: Multidisciplinary Approach*, Routledge, London.
- Ward, S. V., 1998, *Selling Places: The Marketing and Promotion of Town and Cities 1850-2000*, Routledge, London.
- 교신: 임병조, 330-300, 충남 천안시 성성동 6길 천안두정고등학교(이메일: limbkh@hanmail.net, 전화: 041-522-7372)
- Correspondence: Byoung-Jo Leem, Cheonan Dujeong Highschool, 6th street, Seongseong-dong, Cheonan 330-300, Korea(e-mail: limbkh@hanmail.net, phone: 041-522-7372)
- 최초투고일 07. 09. 04.
최종접수일 07. 09. 17.